

신석구의 기독교 사회윤리사상 연구

김권정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I. 머리말

II. 기독교 수용과 실천적 삶

1. 정신적 방황과 기독교 개종
2. 중생체험과 3.1운동 참여
3. 목회 생활과 해방 후 순교

III. 기독교 사회윤리사상 내용과 성격

1. 보유론적 기독교론과 사회윤리 이해
2. 실천적 기독교론과 민족구원론
3. 소명과 섬김의 목회자론

IV. 맺음말

• ABSTRACT •

A Study on the Christian Social Ethics Thought of Shin Suk-Koo

Kim, Kwon-Jung

Shin Suk-Koo was born in the late 19th century to a family of Confucian scholars. In his childhood he set Confucianism above everything else, but in his youth he was in confusion and went astray. His encountering Christianity was a turning point in his life. His faith carried him through the ordeal and was quite certain that Christianity could realize the Confucian ideal and could save his peoples who lost their sovereignty. Since then, he lived his life as a pastor with penury and hardship, through which he acted up to his words thoroughly. Living through Chosun Dynasty, Daehan Empire and Japanese colonial rule, he became an evangelist on a mission to recover the lost ethnicity and was ever fearful for his peoples. As a result, he was qualified to stand proxy for national at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although he putted religious persuasion ahead of politics. At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period, he languished in prison by reason of insubordination to shrine worshipping. Likewise, after independence, he was persecuted by North Korea as he putted his peoples ahead of ideology. He did not think of his brotherhood as distinct from Christian faith and believed that Christianity could be realized with national salvation. In particular, he distinguished the Christian gospel from the western culture and thus stroke out at the unconditional yearning for the western culture. Moreover, he maintained that Confucian ethics could be realized in Christianity and made his endeavors to embody it through ministry and national movement.

Key words: Confucianism,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national salvation, Christian culture

I. 머리말

한국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영향력과 그 의미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개인구원만을 강조하고 현실 타계적인 기복적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기독교계는 복음주의 노선과 진보주의 노선으로 양분된 채 화합하지 못하고, 그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만 있다. 정작 사회에서, 그리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에게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들이다. 어떻게 하든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기독교인 동시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과 사회 사이를 연결시키는 과정이 요구된다. 즉 다원화되고 급변하는 시대에 굳게 닫힌 문을 박차고 기독교인이 책임적으로 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사상적, 윤리적 지침들을 기독교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책임적 존재로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기독교의 사회윤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기독교가 수용된 이래 수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격동의 역사변동 속에서 물었던 질문이기도 하다. 그런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기서 살펴보려는 은재(殷哉) 신석구(申錫九, 1875~1950)이다.¹⁾ 그는 한국 근현대

1) 신석구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있다. 김재황, 『巨星 殷哉 申錫九 牧師』(대구: 대구 제일감리교회, 1988); 신현우, 「심겨진 씨앗으로서의 신석구 목사」, 『세계의 신학』30, 한국기독교연구소, 1996; 백병권, 「신석구목사의 생애와 민족운동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이덕주, 『신석구 연구』(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구, 2000); 이덕주, 「신석구 목사의 신앙과 신학사상(1)~(3)」, 『세계의 신학』 48~50,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2001; 이덕주, 『새로 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개종이야기』(서울:

일반사 뿐만 아니라 교회사에서도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민족운동가’인 동시에 ‘목회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목회자로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였고, 일제 말기에는 신사참배 거부투쟁을 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북한지역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다 순교하였다.

여기서 그를 주목한 것은 유교적 세계관에서 성장한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도 유교적 가치를 인정하며 기독교 윤리를 형성, 내면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민족운동가로서 ‘복음 신앙’을 기초로 한국인의 영혼과 한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일관되게 달려갔다는 이유에서이다. 이것은 그의 삶과 윤리사상을 통해 오늘의 한국 기독교인의 사회윤리적 삶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볼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기독교 수용과 실천적 삶

1. 정신적 방황과 기독교 개종

신석구 목사는 1875년 5월 3일 충청북도 청주군 미원면 금관리에서 신재기(申在綺)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그가 7살 때, 아버지는 15살에 별세하였다. 아버지는 비록 가난했으나 전통유학을 바탕으로 효(孝)를 행하고, 벗과의 의리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선비였다.²⁾ 아버지의 실천적인 모습은 아들 신석구에게 매우 큰 정신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5살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별세하자, 그의 정신적 방황이 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등이 있다. 신석구 목사 자신이 직접 쓴 『民族代表三十三人の一人 殷哉 申錫九 牧師 自叙傳』(서울: 한국감리교회 사학회, 1990)(이하 『자서전』으로 줄임)이 있다.

2) 신석구, 『자서전』, 42~43.

작되었다.³⁾ 감수성이 예민할 때 가정을 이룬 형님에게 얽혀살면서 정서적 불안정이 방탕한 생활로 이어졌다. 유부녀와 5개월간 동거를 하기도 하였으나, 율곡의 격몽요결을 읽고 깨달은 바가 있어 동거생활을 청산하기도 하였다. 그는 20살에 결혼을 했으나 오히려 방황이 심해졌고, 25살이 되던 해에는 그가 믿고 있던 형마저 죽으면서 그의 내적 방황도 더욱 커졌다.

1901년 친구 김진우가 경영하는 전당포 서기로 취직을 하여 안정을 취하였다. 그것도 잠시 친구의 전당포 사업이 5년 만에 실패로 끝나버렸다. 그 일로 친구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자 그는 식구가 많은 친구 대신 자신이 죄를 뒤집어쓰기로 하고 투옥되었다. 그러나 그 친구도 곧 투옥되자 3개월 만에 병을 핑계로 가석방되어 나올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는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고 집과 고향을 떠났다.⁴⁾ 연이은 패배감으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고, 사망신고를 가짜로 한 채 고향과 집을 떠나야만 했다.

1907년 그는 서울로 올라와 정착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친구 김진우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는 서양인들이 들여온 양약(洋藥)을 얻어 팔러 다니고 있었다. 동행을 요구하는 친구에 대한 의리가 되살아난 신석구는 친구와 함께 경기도 장단군 고량포에서 약방을 내고 장사를 시작하였다. 때마침 그 맞은편에는 예배당이 있었다. 친구는 어느새 예수교인으로 변해 있었고, 신석구에게 은근히 믿기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3년 동안 일체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⁵⁾ 그는 유교의 범위 안에서 성장하였으며, 유교 외에는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가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두 가

3) 김재황, 『巨星 殷哉 申錫九 牧師』, 64~67.

4) 이덕주, 『새로 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개종이야기』, 255.

5) 신석구, 『자서전』, 53.

지 이유에서였다. 먼저 친구가 던진 한 마디가 계기가 되었다. 친구는 그에게 말하기를 “자네가 만일 예수를 아니 믿으려거든 罪가 없는가 생각해 보게”⁶⁾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이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도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기독교에 대해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러일전쟁(1904)과 을사조약(1905), 그리고 헤이그 밀사사건(1907)과 고종의 강제 퇴위 사건, 군대해산 등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하는 것을 목도한 그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⁷⁾ 그 과정에서 그는 당시 상황(道)이 없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신석구는 예수교의 도를 알기 위해 성경을 사서 읽어 나갔다. 마태복음을 읽는 중에 그의 내면에서는 유교와 기독교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르러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알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노라”하는 부분에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유교를 폐하러 들어온 예수교라 생각했기에 예수교를 적대시하고 배척한 그였다.⁸⁾

그러던 오�히려 예수교가 유교를 불완전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그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한다는 것이었다. 유교를 완벽한 도(道)로 여겨 왔던 그는 스스로 문답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유교의 결함을 확인하게 되었고, 유교가 개인적 윤리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나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면에 예수교는 유교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유교가 이루지 못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윤리 개혁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또 근대 문명을 지닌 서양국가들 대부분이 예수교 국가라는 점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6) 신석구, 『자서전』, 54.

7) 이덕주, 『새로 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개종이야기』, 261.

8) 신석구, 『자서전』, 259.

고 인식하였다.

이렇게 신석구는 유교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롭게 밀려오는 기독교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얻고, 쓰러져 가는 국가를 구하는 방편의 하나로 기독교를 택하고 유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2. 중생체험과 3.1운동 참여

1907년 7월 신석구는 경기도 고량포교회 예배에 자진해서 참석하였고, 드디어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의 나이 33세였다. 믿기로 작정하고 그 주일 밤에 7살 이후 33살까지 기억되는 모든 죄를 고하고 용서하심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⁹⁾ 믿은 지 한 달 후에 청주 고향 출신의 정춘수 전도사가 고량포교회에 왔고, 그가 신석구에게 개성으로 가자고 권유하자, 그는 정춘수를 따라 개성으로 갔다.

1908년 3월 29일 "개성 남부예배당"에서 왕영덕(A. W. Wasson)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 해 신석구는 기독교의 진리를 더 깊이 알기 위해 경성 '협성신학교'(현 감리교신학대학)에 입학하였고, 3년 만에 졸업하였다. 그는 1908년 7월 5일부터 개성남부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일했으며, 1908년 2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전도사 직책을 받고 "개성 북부교회"에 파송받아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후 신석구는 선교사의 추천으로 1909년 2월 개성 북부교회 소속의 전도인으로 정식 임명되었다.¹⁰⁾

그러나 윤리적 설교만으로는 민중들에게 전도할 수 없었다. 자신의 내면에 천당이나 죽음 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전도활동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내적 신앙의 확신 없이 전도인 직분을 맡았던 것이다. 그는 기도하던 중에 자신의 마음 속 전체가 죄(罪)로 가득 차 있

9) 신석구, 『자서전』, 60.

10) 김재황, 앞의 책, 90.

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근본적 문제였다.

머칠을 울며 기도하던 중 그는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 눈앞에 나타나며 주님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는 내 머리에 떨어지는 듯하니 나는 그 십자가 밑에 엎드린 것 같았다...죄몽치는 구름 흠어지듯 안개 사라지듯 아주 없어지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여 넘쳤다”¹¹⁾는 ‘중생(重生)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후 신석구는 목회자의 길에 확신을 갖고 걷게 되었다.

그 후 홍천 구역장(1910-1914), 가평 구역장(1914-1915), 춘천지방 부흥사업(1915-1918)에 파송을 받아 목회와 전도에 힘썼다. 1917년에는 집사 목사안수(1917년 9월 24일)를 받았으며, 1914년 경기도 가평, 1915년 춘천에서 목회를 하던 그는, 1917년 6월 남감리교 조선 매년회에서 집사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1918년 11월 서울 수포교교회 담임목사가 되었다.¹²⁾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가 신비적인 체험 신앙을 통해 목회자 길에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고통당하는 ‘민족’의 현실을 잊지 않았다는 점이다. 1919년 국내에서는 기독교·천도교·불교계 인사들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거족적인 민족운동을 추진하였다.¹³⁾ 3·1운동에 참여해달리는 오화영 목사의 권유를 받았을 때, 그는 당연히 참여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 가지 해결 못한 점이 있었다.¹⁴⁾ 먼저 교역자가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하는 문제였고, 다음은 교리가 다른 천도교와 같이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점이었다. 이를 두

11) 신석구, 『자서전』, 68.

12) 김재황, 앞의 책, 98~100.

13) 김양선, 「3·1운동과 개신교계」, 『3·1운동 50주년 기념 논집』, 동아일보사, 1969, 235~270 참조.

14) 신현우, 「심겨진 씨앗으로서의 신석구 목사」, 『세계의 신학』 30, 1996, 116.

고 새벽마다 기도하던 중, 그는 “4천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네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¹⁵⁾하는 ‘음성(音聲)을 들은 그는 즉시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그를 만류하려는 사람들을 뿌리치며 그는 “나도 이른 줄은 안다. 그러므로 지금 독립을 거두려 함이 아니오 독립을 심으려 들어가노라”¹⁶⁾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갔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에 참여한 일로, 그는 2년형을 선고받고 투옥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는 체포되어 취조를 받는 중에 “왜 독립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일본 경찰에 질문에, “조선은 조선민족으로 통치하도록 하려고 생각하였고……조선은 언제든지 조선사람의 조선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라고 하여, 강한 독립의지를 천명하였다. 또 ‘피고는 조선독립이 될 줄로 생각 하는가’라는 재판 판사의 질문에, 그는 ‘장래에 조선독립이 될 것임을 확신 하면서 ‘독립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할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¹⁷⁾

그의 신앙은 투옥 중에 오히려 더욱 성숙되어갔다. 그는 훗날 “사십여년 신앙 생활 중 그 때 5개월간 독방 생활할 때같이 기쁨의 생활을 할 때가 없다”¹⁸⁾고 고백할 정도로, 오히려 옥중에서 깊은 신앙적 체험을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신석구는 민족의 고통스러운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참여하여 함께 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깊은 신앙적 결단에서 비롯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옥중에서 독립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더욱 깊은 단계의 성숙한 신앙을 경험하게 되었다.

15) 신석구, 『자서전』, 83-84.

16) 신석구, 『자서전』, 86.

17) 이병현, 『3·1운동 비사』, 시사시보사 출판국, 1959, 494~497.

18) 신석구, 『자서전』, 84.

3. 목회 생활과 해방 후 순교

옥중에서 더욱 성숙된 신앙을 갖게 된 신석구는 다음과 같이 꿈을 통한 신앙체험을 언급하였다.¹⁹⁾

“한 번은 사람과 어디 대전도(大傳道)에 갔다. 다른 사람은 다 가고 나 혼자 떨어져서 돌아오는 길에 금방 물없는 내(乾川) 위에 다 무너져 가는 흙다리(坵橋) 위를 지날 때 별안간 뒤에서 급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며 내 왼편 귀에 소리가 들리는 데 「너는 남의 죄만 책망하지 말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신다”

옥중에서 남을 위해 섬기라는 음성을 들은 그는 과연 어떤 것이 남을 섬기는 삶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날마다 무슨 일이든지 남을 돕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곧 남을 섬기는 것이란 점에 이르르게 되었다. 평생 섬기는 마음으로 살 것을 결단한 그는 출옥한 이후 기도와 말씀을 갖고 원산, 고성, 춘천, 가평, 서울, 철원, 간포, 천안 등지를 돌며 ‘섬기는 목회를 하였다.’²⁰⁾ 그는 주변에서 반대하더라도 남이 가기를 꺼리는 가장 못한 교회를 찾아 자원하여 파송되어 갔고, 그 곳에서는 철저하게 섬기는 목회를 실천하였다.²¹⁾

이런 섬김의 목회는,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섬기는’ 선생의 모습으로 감동시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 것처럼, 교회와 목회자가 사회에 봉사함으로 사회를 감동시켜 천국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구체화되었다.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贖罪하여 주려 함이다 하셨으니 이는 곧 희생을 가르친 말씀이옵

19) 신석구, 『자서전』, 87.

20) 이덕주, 『새로 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개종이야기』, 266.

21) 신주현, 『심겨진 씨앗으로서의 신석구 목사』, 119.

시다. 인간의 타락된 본성은 순전한 욕심인고로 얼마든지 타인을 희생하여 자기의 이익을 채울지언정 자기를 희생하여 타인을 유익하게 한다 함은 몽상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 희생하여 자기의 이권을 확대케 하는 자를 일컬어 지혜있는 자라”²²⁾해도 과연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남을 희생시켜 자기를 살리는 것이 세상의 질서라면 나를 희생해 남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임을 강조하였고, 그리스도 희생을 기초로 설립된 교회가 그런 희생 실천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후 그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다.

전쟁으로 치닫던 일제말기 그를 그대로 놔둘 리가 없었다. 3.1운동 민족대표였던 신석구에 대한 신사참배가 강요되기 시작하였다.²³⁾ 이에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친일적인 혁신교단 가입을 거절하였다. 그 이유로 그는 1943년 변절한 친구 목회자 정춘수로부터 목사직 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그가 목사직을 잃은 아픔보다 친구 목사의 변절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하였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천안 경찰서에 3개월 구금되었다 풀려난 그는, 1945년 5월에는 “예배당 마당에 일장기를 게양하지 않고, 전승 기원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검속되어 유치장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²⁴⁾

해방이후 그는 북한지역에 그대로 남아 광량만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였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소군정이 설치된 북한 지역이었으나, 신석구는 차마 양을 두고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해방 이듬해 개최된 3·1절 기념 방송에 출연하였으나 소군정 하의 공산세력이 써주는 원고대신 북한 공산세력의 반민족행위를 규탄 동시에 김일성 공산세력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방송을 하였고, 3·1운동 공포

22) 신석구, 「奉仕와 犠牲」, 『禧年紀念說教集』, 기독교서회, 1940,

23) 김재황, 앞의 책, 125.

24) 『매일신문』, 1994년 10월 11일자.

표창을 거부하기도 하였다.²⁵⁾

결국 기독교민주당을 비밀결사로 조직했다는 이유를 들어, 1949년 4월 그는 체포, 투옥되어 10년 형을 언도받았고, 6·25전쟁 중 11월 경 퇴각하던 공산군에 의해 순교 당하였다.²⁶⁾

따라서 신석구는 3·1운동이후 더욱 신실해진 신앙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섬기는 목회자로 실천적 삶을 살았으며, 일제말기 신사참배에 맞서 하나님 신앙을 비타협적으로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 거부투쟁을 하다 투옥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해방 후 공공연하게 종교자유 차원에서 무신론을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소군정아래서 그는 북한지역을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북한에 남아 목회를 하였다. 목회자로서 목양하던 이들을 놓고 북한에 남겨두고 나올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신석구는 북한정권의 탄압을 받게 되었고 6·25전쟁 중에 퇴각하던 인민군에 의해 순교 당하였다.

Ⅲ. 기독교 사회윤리사상 내용과 성격

1. 보유론적 기독교론과 사회윤리 이해

신석구가 처음에 기독교를 거부했던 것은 지금까지 믿어온 유교에 대한 인식과 의리 때문이었다. 그것은 유교만이 가장 ‘완전한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⁷⁾ 그러나 이같은 확신은 성경을 읽으면서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마태복음 5장 17절을 읽으면서 스스로 자문자답(自問自答)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전통적인 유교의 지식 습득

25) 『嶺南日報』, 1968년 7월 31일자.

26) 김재황, 앞의 책, 143~147.

27) 신석구, 『차서전』, 53.

과정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통해 그는 유교가 ‘불완전’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와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과 같은 내적 토론이 그의 마음속에서 벌어졌다.²⁸⁾

문: 유교의 목적이 무엇이나?

답: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이다.

문: 수신제가 하였는가?

답: 간혹 하였다.

문: 치국평천하 하였는가?

답: 못하였다.

.....

답: 유교가 잘못 되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치 아니하여 그렇지

문: 비유로 말하자. 여기 수레바퀴(車轍) 둘이 있는데 하나는 끄는 대로 잘 굴러 가되, 하나는 아무리 끌어도 끌리지 아니하면 그 끄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수레바퀴 자체에 고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교는 다 버린 사람도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되는 데 유교는 어려서부터 배워도 아니 된다면 배우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교 자체에 무슨 결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치열한 내적 문답에서 그는 먼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유교의 실천목표와 현실 상황을 비교, 검토하였다. 이같은 ‘심중전’(心中戰)을 통해 그는 유교의 결함을 확인하고 오히려 유교를 추궁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²⁹⁾ 이어 그는 국가적으로 유교가 국가 종교 및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당시 유교가 현실과 유리된 채 ‘쇠퇴한’ 종교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28) 신석구, 『자서전』, 57~58.

29) 이덕주, 『새로 쓴 한국그리스도인들의 개종이야기』, 266.

그런데 그의 입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었다. 19세기말 이래 신문명을 수용하며 기독교를 받아들인 전통적 유교지식인들 가운데 대부분은 유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후 유교를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단절적’ 태도를 보였다.³⁰⁾ 그러나 신석구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는 단순히 유교를 ‘버림’으로써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교적 결점을 ‘보완’할 종교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³¹⁾ 이런 관점은 그가 기독교를 유교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된 것으로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독교가 유교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보유론적’(保儒論的) 기독교관을 갖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³²⁾

이를 기초로 신석구는 ‘공자가 살아왔더라도 사람을 새롭게 못 만들고 싸움만 하는 유교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독교로 자리를 옮겼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유교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유대교 율법과 같은 차원의 종교로 이해하고, 사도바울이 표현한 바 있었던, ‘몽학선생’(蒙學先生)으로 불렸다.³³⁾

그래서 그는 유교가 율법처럼 인간에게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진짜 도(道)인 기독교로 인도한다고 보았다. 유교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종교가 과거에 나름대로 의미와 기능을 발휘하였으나, 완성에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제 기독교만이 그 부족한 것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³⁴⁾

30) 이에 대해서는 유영익, 「1880~90년대 개화파인사들의 개신교 수용 양태」, 『진단학보』 70, 1990; 박정신, 「구한말, 일제 초기의 기독교 신학과 정치」, 『근대한국과 기독교』, 민영사, 1997; 강경림, 「구한말 지식인들의 기독교 개종과 YMCA」, 『신학지평』 15, 2002 등을 참조.

31) 이런 입장은 당시 대표적 지식인인 이상재에게 드러나고 있다. 김권정, 「한국기독교 초기 유교지식인의 기독교 사회윤리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20집, 2010을 참조할 것.

32) 신석구, 「信으로 得救하는 道理를 論함」, 『신학세계』, 1917.11, 162~163.

33) 신석구, 「信으로 得救하는 道理를 論함」, 163.

그러나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해서, 그가 모든 종교가 등가(等價)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본 것은 아니었다.

或이云하대上帝께서人을罪에서救援하고자하시면何故로他宗教보다 예수께서後에來하셨나뇨 하나니此는上帝께서人의驕慢함을知하심이니 만일 예수先次降臨하셨으면人이必言하기를我行으로得救할지라信이何關이有하리오 할지라.故로先次行할道理를敎示하여彼等으로하여금能히行치 못할 줄을自覺한後에다만上帝께服從하여그恩惠를信함으로得救케 하시오 결단코上帝께서人을救援하시기를遲緩케하심은아니라,甚哉라人心이悖惡함이어.

이렇게 그는 기독교 복음이 수용된 이후 기독교 이외에 구원받을 종교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오늘날 다원주의(多元主義)와는 확연하게 다른 입장을 분명하게 표출하였다.³⁵⁾ 그는 기독교에 대한 ‘절대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타 종교에 대해 담을 쌓고 대화조차 거부하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입장에서 벗어났다. 타 종교들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완성시켜 주는 ‘참된 종교’로서 기독교 의미와 그 역할을 역설하였다.³⁶⁾

이와 같은 인식의 내적 전환과정을 거쳐 그는 기독교가 유교와 같은 전통적인 종교와 ‘연결’되면서도 ‘구별’되는, 한민족에게 ‘구원’의 종교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런 입장은 3.1운동 당시 절대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 천도교와 불교 등 다른 종교지도자들과 만나고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34) 윤리적 관점에서 한국 기독교와 유교를 검토한 글은 최태연, 「한국 유교와 기독교의 공동체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6집, 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3; 김영일, 「한국교회 성장과 유교문화」, 『기독교사회윤리』 제16집, 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8을 참조할 것.

35) 이덕주, 「신석구 목사의 신학과 신학사상(3)」, 『세계의 신학』 50, 한국기독교연구소, 2001, 230~231.

36) 신석구, 「基督教의 使命」, 『宗教界 著名人士 講演集』, 1921, 139.

이처럼 신석구는 유교와 공자의 가르침을 완성할 수 있는 종교로서 기독교의 능력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었다.³⁷⁾ 즉, 그는 기독교를 통해 유교가 이루지 못했던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차원에서 윤리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2. 실천적 기독교론과 민족구원론

신석구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기독교가 윤리적으로 실천적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어린시절 부모에게 유교적 교육을 받을 때부터 ‘실천’(實踐)이란 점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배우고 또 ‘효’를 실천하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성장하였다. 그는 치열한 내적 투쟁과 검토, 고찰 끝에 ‘실천’이란 관점에서 그는 유교가 사람을 사람답게 변화시키지 못하나, 예수교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묘리(妙理)가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는 기독교를 철저하게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개종하였던 것이다.³⁸⁾ 이것은 유교적 실천이란 윤리적 강조점이 기독교적 실천 속에서 그대로 연속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평생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체험적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였다. 성경말씀에 근거해 그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앙노선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그에게는 그 어떤 교리와 신조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그 권위가 성경보다 우위일 수 없었다.

반면 보수적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였다. 그것은 체험적 신앙인들이 흔히 현실과 유리된 채 내세만을 바라보고 현실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자주 있음을 비판적으로 보았고, 이를 실천성이 결여된 신앙의 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원하

37) 이덕주, 「신석구 목사의 신학과 신학사상(3)」, 229.

38) 신석구, 『자서전』, 56.

시는 뜻이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임을 주장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실천적으로 나설 것을 역설하였다.³⁹⁾

그는 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며 실천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지도자의 언행일치(言行一致)를 역설하였으며,⁴⁰⁾ 기독교 신앙의 권위와 생명이 단순한 장식이나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참된 가치를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1930년대 한국 교회가 침체 상태에 빠져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주된 원인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실천성의 결여임을 지적하였다. 겉모습과 이론에 치우친 기독교의 모습은 일반사회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예수 당시의 유대교 상황에 빗대어 비판하기도 하였다.⁴¹⁾ 봉사와 희생의 신앙을 실천하는 기독교야말로 이 시대의 민족과 사회를 구원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실천적 기독교론에 입각하여 신석구는 평생 기독교적 윤리갱신만이 민족을 구원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⁴²⁾

참으로 나라를 救援하려면 예수를 믿어야겠다. 나라를 구원하려면 잃어버린 국민을 찾아야겠다. 나 하나 회개하면 잃어버린 국민 하나를 찾는 것이다. 내가 믿고 전도하여 일인이 회개하면 또 하나를 찾는 것이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국민을 다 찾으면 나라는 자연 구원할 것이다.

39) 신석구, 「奉仕와 犠牲」, 270.

40) 신석구, 「하나님과 동사함」, 『基督申報』, 1927년 8월 10일자.

41) 신석구, 「犠牲의 奉仕에 있다」, 『基督申報』, 1930년 1월 1일자.

42) 신석구, 『자서전』, 59.

그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후에 전도하는 것이 나라를 구원하는 길이며 국권회복의 지름길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기독교를 믿으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들도 잘 살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고종이 강제퇴위하기 5일전이 1907년 7월 14일 “잃어버린 국민을 되찾기 위해” 기독교 개종을 결심하고 고랑포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다.

이후 그의 정치와 사회참여론은 기독교 윤리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민족구원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민족구원론은 민족이 처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가 보기에 그런 현실은 무기력한 환자처럼 나라를 잃은 상실감에, 절망적인 경제 현실과 혼탁한 사회 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⁴³⁾ 특히 그 가운데 게으름이 망국의 한 원인이며, 이것은 천성적인 것으로 민족 구성원들의 ‘죄의 결과’로 인식하였다.⁴⁴⁾ 당시 민족의 현실을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시대에 비유하였다. 바벨론 포로시대에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자신이 뒤집어쓰고 회개한 것처럼 일제 강점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국권회복의 길임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그 회개는 단순한 말로 끝나면 안되고, 변화된 생활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 증명해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눅 3:8)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회개를 통해 보여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심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을 통해 얼굴에 나타나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회 및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임을 언급하였다.⁴⁵⁾

43) 신석구, 「시작하면 끝까지 볼 것」, 『그리스도회보』, 1911년 9월 30일자.

44) 신석구, 「우리의 죄」, 『신학세계』, 1922. 5, 43.

45) 신석구, 「기독교와 사명」, 『종교계 저명인사 강연집』, 활문사, 1922, 142.

“오늘 우리 조선에서 제군과 같이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백성을 성결케 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적으로 되어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의 교회의 초석으로 산 그리스도를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뜻은 교회에 들어 왔을 것 같으면 어떤 곳을 둘러 보든지 그 교회를 모으는 사람들은 목사 장로 전도사 교사 집사 보충신자 남녀노유를 물론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피가 통한 것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석구는 기독교 공동체가 ‘그리스도적’으로 변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단체’로 변할 때 민족의 구원 및 나라 구원이 가능하다고 보았다.⁴⁶⁾ 교회는 교회답게 존재해야 할 때 구원의 역사가 확장될 수 있으며, 그 구원은 개인의 구원에서 사회와 국가, 민족의 구원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의 민족구원론 핵심은 기독교회 안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답게 윤리적으로 구별된 모습을 갖고 민족 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데서 시작된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모범이 가능하게 될 때, 그는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전도 활동도 가능해질 수 있고, 결국 이를 기초로 해서 민족구성원의 의식을 계몽하고 대중적 실력 양성함을 통해 국권 회복 및 국가독립을 회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침체된 이 민족을 올바른 생활로 인도하는 종교적 갱신을 통해 민족의 독립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의 신념에서 나온 것이었다.

따라서 민족구원론은 그의 실천적 기독교론과 결합되면서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인 1인으로 참여하고 일제말기 많은 기독교인들이 강요하는 신사에 참배하는 현실에서 끝까지 비타협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 일관된 민족운동의 이론의 토대이자 내적(內的) 동력(動力)이 되었다.

46) 신석구, 「基督敎와 使命」, 『宗教界 著名人士 講演集』, 1921, 142.

3. 소명과 섬김의 목회자론

신석구는 독립운동과 사회운동도 참여했으나 목회자의 길을 결코 벗어난 적이 없었다. 평생을 목회자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다. 그는 31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해방 후 북한지역에서 공산세력에 맞서 투쟁한 것도 역시 목회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였다. 곧 독립운동이나 공산주의 반대투쟁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려는 과정이었다.

목회자로서 신석구는 평생 소명과 섬김의 윤리를 강조하였다. 그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소명의식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⁴⁷⁾ 이런 소명의식은 1909년 2월 처음으로 전도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부터 간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차례 목사직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기 전에는 어찌 임의로 그만둘 줄 수 있을까?”⁴⁸⁾라는 성찰을 하면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강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회자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그는 교회의 생명력은 목회자에게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목회를 “하나님과 동사(同事)”하는 작업으로 인식하였다.⁴⁹⁾ 그는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거나 또는 너무 과소평가하여 하나님 능력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고, 하나님과 모든 일에서 함께 하는 동역자가 목회자였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⁵⁰⁾

47) 신석구, 『자서전』, 63-64.

48) 신석구, 『자서전』, 63.

49) 신석구, 「하나님과 동사함」, 『基督申報』, 1927년 8월 10일자.

50) 신석구, 「敎役者의 必要한 것」, 『基督申報』, 1926년 8월 25일자.

우리는 하나님과 동사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며 하나님께만 전탁하지 말고 자기 독단으로 하지 말아서 꼭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려면 불가불 헌신적으로 해야 할 것이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과 동사자가 되면 우리 마음은 항상 상쾌할 것이오 우리의 사업은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목회자의 길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목사직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목회자는 삶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먼저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목회자의 삶은 바로 궁핍, 능욕, 박해, 고독, 버림받음, 고통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통해 실망과 좌절이 아닌, 희망과 용기를 얻어야 한다고 보았다. 목회의 길이 목회자가 교회 뿐 아니라 민족과 사회에 소망을 심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⁵¹⁾ 교회가 현실의 침체상태를 벗어나 활기를 띄고 세상을 구원하여 '천국화'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표명하였다.⁵²⁾

우리가 참으로 教會를 振興하려면 基督이 精神을 實現하여야 하겠다. 첫째 奉仕의 精神으로 中人의 疾痛艱苦를 같이 하여 그들이 깊은 同情을 얻어야겠다. 예수께서 至尊하신 上帝의 子로 종의 形象을 取하사 罪人들도 더불어 같이 하심은 그렇게 아니하시면 그들을 救援하지 못하심이다. 우리 교역자들은 이 精神을 實現하여야 겠다. 나는 지금 교회가 物質文明으로 表面을 裝飾함을 贊成치 않는다. 누구든지 그 民族을 救援하려면 그 民族과 同化치 않고는 안 될 줄 안다. 둘째 犧牲의 精神으로 自益을 도하는 雇軍의 마음을 버리고 羊을 爲하여 목숨을 바리는 牧者의 마음으로 標杆을 위하여 疾走함으로 基督께서

51) 신석구, 「신석구 목사의 신앙과 신학사상(3)」, 211~212.

52) 신석구, 「犧牲的 奉仕에 있다」, 『基督申報』, 1930년 1월 1일자.

십자가에 被釘하심을 中人의 眼前에서 明見하여야 하겠다.

신석구는 기독교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적 봉사로 구성되어 있다 고 파악하였다. 교회가 희생과 봉사 정신을 상실할 때 교회는 침체될 수밖에 없고 ‘천국화’(天國化)라는 지상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그 과정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1930년대 초 한국교회가 침체상태가 빠진 것도 대부분이 목회자들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위기에 처한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삷군’ 목사가 아니라 양을 구하기 위해 자기목숨을 버리는 ‘참 목자’가 되어 민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만이 교회의 권위와 활력을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교회가 희생적 봉사 기능을 회복하는데 누구보다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의식 속에서 신석구는 3·1운동 중 민족대표 33인이 1인이 되어 참여했다가 옥중 생활 중 「너는 남의 죄만 책망하지 말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는 ‘신비적’ 체험을 하고 난 뒤 평생을 섬기는 목회자, 지도자로 방향을 잡아갔다.⁵³⁾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생이 되고 主도 되어 너희를 섬긴다’ 하셨으니 세상 풍속으로 말하면 제자가 선생을 섬기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原則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선 선생도 다시 주도 되어서 섬기는 일을 하심으로 天國의 法則을 세우신지라.

신석구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섬기는 선생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을 감동시켜 천국사람 되게 만드신 것처럼 한국교회와 목회자들도 사회에 봉사, 실천함을 통해 사회를 감동시켜 천국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야

53) 신석구, 『奉仕와 犧牲』, 270.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섬기는 자세와 함께 희생이 요구된다고 보았으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것 속에서 천국 질서가 세워져 나간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신석구는 강한 소명의식과 섬김의 자세로 목회자로서 살기를 갈망하였다. 교회의 부흥이 목회자에게 달려 있다는 강한 인식 속에서 목회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의식을 기초로 어렵고 힘든 목회활동에 헌신할 것을 주문하였다. 궁극적으로 목회자가 민족과 사회 속에서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민족과 사회를 위한 희생적 봉사만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희생적 봉사라는 차원에서 섬김의 자세를 갖고 평생 목회자가 민족과 사회의 소망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던 것이다.

IV. 맺음말

신석구는 19세기말 전통적 유교집안에서 태어나 유교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자랐다. 그는 청년시절 정신적 방황과 윤리적 타락을 극복하고 기독교를 접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그는 기독교를 유교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종교로 확신하고, 국권상실이란 상황 속에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로 이해하였다. 목회자로서 가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으나, 그 자신이 철저하게 언행일치의 윤리를 실천하였다.

한말과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해방이후 시련 속에서 '잃어버린 국민'을 되찾기 위해 전도인이 되었고, 평생 '민족'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치보다 교회를 우선시하는 보수적 신앙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1운동에 민족대표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일제말기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렀으며, 해방 후에는 북한에서 고난당한 이유도

이념에 앞서 민족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기독교 신앙과 민족을 별개로 보지 않았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민족 구원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기독교 복음과 서구 문화를 구분하여, 서구 기독교 문화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비판적으로 이해하였다. 나아가 유교의 윤리적 가치를 기독교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목회와 민족운동이란 사회적 실천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 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서 국권 회복 및 국가독립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윤리적으로 침체된 민족을 올바른 생활로 인도하는 종교적 갱신을 통해 민족의 독립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민족구원론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그의 실천적 기독교론과 결합되면서 3·1운동 참여와 신사참배거부투쟁 등 민족운동 및 목회활동의 내적(內的) 동력(動力)이 되었다. 끝으로 궁극적으로 목회자가 민족과 사회 속에서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 민족과 사회를 위한 희생적 봉사만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섬김의 자세를 갖고 목회자가 민족과 사회의 소망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역설하였다.

참고문헌

- 강경림. 『구한말 지성인들의 기독교 개종과 YMCA』, 『신학지평』 15, 2002.
- 김권정. 『한국기독교 초기 유교지식인의 기독교 사회윤리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20집, 2010.
- 김양선. 『3·1운동과 개신교계』, 『3·1운동 50주년 기념 논집』. 동아일보사, 1969.
- 김영일. 『한국교회 성장과 유교문화』. 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16집, 2008.
- 김재황. 『巨星 殷哉 申錫九 牧師』. 대구: 대구제일감리교회, 1988.
- 박정신 『구한말, 일제 초기의 기독교 신학과 정치』, 『근대한국과 기독교』. 민영사, 1997.
- 백병권. 『신석구목사의 생애와 민족운동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신석구. 『民族代表三十三人の一人 殷哉 申錫九 牧師 自叙傳』. 서울: 한국감리교회 사학회, 1990.
- 신현우. 『심겨진 씨앗으로서의 신석구 목사』, 『세계의 신학』 30. 한국기독교연구소, 1996.
- 유영익. 『1880~90년대 개화파인사들의 개신교 수용 양태』, 『진단학보』 70, 1990.
- 이덕주. 『신석구 연구』.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0.
- 이덕주. 『신석구 목사의 신앙과 신학사상(1)~(3)』, 『세계의 신학』 48~50.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2001.
- 이덕주. 『새로 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개종이야기』.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 이병헌. 『3·1운동 비사』. 시사시보사 출판국, 1959.
- 최태연. 『한국 유교와 기독교의 공동체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6집. 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3.
- 『그리스도회보』, 『基督申報』, 『매일신문』, 『嶺南日報』, 『신학세계』.
- 『宗教界 著名人士 講演集』, 1921; 『禧年紀念說教集』, 기독교서회, 1940.

논문투고일: 2012. 10. 31

심사개시일: 2012. 11. 27

게재확정일: 2012. 12. 19

• 국 문 초 록 •

신석구는 19세기말 전통적 유교집안에서 태어나 유교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자랐다. 그는 청년시절 정신적 방황과 윤리적 타락을 극복하고 기독교를 접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그는 기독교를 유교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종교로 확신하고, 국권상실이란 상황 속에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로 이해하였다. 목회자로서 가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으나, 그 자신이 철저하게 언행일치의 윤리를 실천하였다. 한말과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해방이후 시련 속에서 '잃어버린 국민'을 되찾기 위해 전도인이 되었고, 평생 '민족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치보다 교회를 우선시하는 보수적 신앙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1운동에 민족대표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일제말기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루었으며, 해방 후에는 북한에서 고난당한 이유도 이념에 앞서 민족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기독교 신앙과 민족을 별개로 보지 않았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민족 구원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기독교 복음과 서구 문화를 구분하여, 서구 기독교 문화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비판적으로 이해하였다. 나아가 유교의 윤리적 가치를 기독교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목회와 민족운동이란 사회적 실천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유교, 언행일치, 3·1운동, 민족구원, 기독교 문화
